

[특집]

위기의 시대, 공동체 운동의 사목*



박 기 호

[서울대교구 · ‘산위의 마을’ 공동체 지도신부]

글머리에

1. 한국 사회, 왜 위기라고 말하나?
 2. 화려한 고독의 한국 사회
 3. 시대의 소명: 대응의 삶
 4. 교회의 소명과 사목적 응답
 5. 시대의 현실에 도전하는 교회
 6. 시대에 응답하는 공동체 사목과 공동체 건설의 공학적 모색
- 마무리하며

글머리에

코로나 시대의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규제 속에서도 삶의 고달픔을 안은 교우들이 성당을 찾아온다. 세상이 아픔으로 신음할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교회의 존재이유를 드러낼 때이다. 교회가 구원의 성사가 되고자 한다면 사목자는 자신의 역사 현실에서 하느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화에 대한 분명한 대상을 알고 찾아야 할 것인데 누구를 무엇을 회개와 변화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사람들은 놀라운 과학 기술의 변화를 겪으면서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진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변화하는 것은 시대이지 인간과 삶의 진보가 아니다. 필자는 70을 훌쩍 넘긴 노사제로서 짧은 생애 안에 전기 문명 이전의 삶에서 인공지능의 세대가

* 이 글은 2020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지 기술시대의 양극단을 어렵פות이 겪었고 또 증언할 수 있는 옛 세대의 막내라는 생각을 한다. 기술의 변화도 시대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가속도의 끝에 이를수록 얼마나 고속인지 현기증을 일으킨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듯한 느낌이다. 전기 문명 이전의 농경사회와 인공지능 시대의 양극화 양상을 목도하고 경험한 행운아일 수도 있고 이쪽저쪽의 부적응자로서 고된 의무와 인내만 있고 향유 없이 살아온 불행아일 수도 있겠는데 … 그런 연유로 이 글의 투박하고 체계 없는 횡설수설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

이 글은 우리 시대 비인간적인 사회문제를 통감하고 살아가는 필자의 지각에 걸린 문제들, 한국 사회 실태와 현상을 문화생활과 의식세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선진 미국사회 지식인들이 동 현상에 대해 ‘소스타인 베블런’에서 ‘존 프란시스 카바나’에 이르기까지 규명해 온 핵심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한국 교회가 사목 주제로 삼을 수 있는 응전의 자세를 공동체 영성 중심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의도하는 바는 이로써 공동체의 관심을 주목시키는 호루라기 소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한국 사회, 왜 위기라고 말하나?

1.1.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청년 세대들은 왜 그토록 힘들다고 아우성일까? 취업도 결혼도 주택마련의 계획도 포기해 버린 이른 바 ‘3포 세대’ 청년들은 좌절과 박탈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의 고뇌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는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절망으로 위기감을 호소한다. ‘보다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것’은 인간 본능이며 생명의 현상이다. 예수시대 메시아니즘이건 하느님 나라 운동이건 조선시대의 농민봉기건 후천 개벽의 가르침이건 삶이 도탄과 위기에 처할 때의 시대정신은 늘 새로운 세상 또는 대동 세상의 건설이라는 이상향(理想郷)에 맞추어져 있었다.

탄광산업이 폐업에 이르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식솔을 데리고 살길을 찾아 상경했다가 살길이 막연할 때 빈 일자리가 기다려 주던 곳이 탄광이었다. 각지의 빈농과 실패한 이농 가장들이 찾아들었다. 광부로서 보직은 막장 작업이다. 아침에 도시락 하나를 들고 지하 4Km까지 들어가 석탄을 캐면서 목숨을 걸고 하루를 버티는 곳이다. 요즘도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이지만 일꾼을 기다리는 빈 막장 같은 곳이 아마 택배노동 아닐까 생각도 든다. 그들도 아버지 세대 탄광 노동자들처럼 아침마다 목숨 걸고 오토바이 시동을 건다. 육체노동의 경험도 없는데 부들부들 다리를 떨며 계단을 올라 다닐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리고 내 다리가 무너질 것만 같다. 빈부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개선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암운(暗雲)만 가득하다.

1.2.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 ‘나를 가난뱅이로 보지 마! 나는 미래의 상류층이야!’

1980년대 미국사회 현실에서 지식인들은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했다. 하나는 환경의 관점인 ‘대기오염’과 ‘지구 온난화’ 문제로서 주로 시민사회와 환경론자들의 화두가 되었고 또 하나는 ‘왜 가난한 이들이 부자 정당에 투표하는가?’ ‘흑인들은 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가진 공화당을 지지하나?’ 하는 정치의식에 대한 질문이었다. 지구환경의 문제는 결국 책임소재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치 경제계가 인정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로 정리될 수 있었지만 정치의식의 문제는 규명조차도 정리되지 못했다.

가장 근접한 것이 ‘조지 레이코프’가 ‘공화당의 프레임 정치’라는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정도였다.¹⁾ 그러나 더 심층적인 근본문제까지 검증하는 데는 미국의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1899년에 주창했던 고전적 명저 ‘유한계급론’까지 소환해야 했다.²⁾

1) 참조: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유나영 옮김, 도서출판 삼인, 2018.

2) 참조: 소스타인 베블런, 『유한계급론』, 김성균 옮김, 우물이있는집, 2012.

후대 ‘스코트 니어링’과 함께 미국을 대표했던 사회주의자 ‘소스타인 베블런’은 ‘왜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었는데 사치품이 잘 팔리는가?’ ‘왜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는데 소수의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집권할 수 있는가?’ 매우 불편한 진실들에 대한 질문으로 호사스런 사치생활과 명품, 인간에 대한 과시욕으로 치장한 유한마담의 생활을 로망하는 하류층들의 탈계급화 심리와 정치적 행위를 인간의 본성적 시각에서 예리하게 분석해 냈다. 하층민들은 같은 처지의 이웃들과 저소득층을 위해 교육, 의료 등 사회보장을 주장하는 민주당보다는 부자들과 함께 선별복지를 강조하는 공화당을 편들고 지지하는 정치적 현상에 대해 자신의 현실과 처지를 부정하고 상류계급을 편드는 현상도 ‘내적 욕망’과 ‘자기부정’으로 파악했다.

고상하고 기품 있는 유한마담들의 그림 같은 생활은 현실적으로는 언감생심이지만 머지않아 얻게 될 미래의 자기모습으로 설정하고 이미 상류층 정치인 누군가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 계급처럼 느끼면서 마땅히 지지해야 하는 의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되어야 할 미래의 삶’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되고 싶은 미래의 삶’에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정치적 억압과 군부독재 주역들의 후신이었던 보수정당에 대한 묻지마 지지자들이 70년대부터 50여 년간 현재까지도 전 유권자의 35~40%의 기본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던 현상과도 정확히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 지성들의 두 가지 인문학적 질문의 핵심적 원인은 뜻밖에도 ‘생태로서의 문화’라는 바탕에서 해결되었다. 문화생활의 배설물인 1) 생태 환경, ‘지구 온난화’와 2) 문화생활을 이상하는 ‘왜곡된 의식’이 그것이다. 어쨌든 공통분모는 ‘문화’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상류층 엘리트들이 누리는 문화적 향유를 자본주의 경제가 노력하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하는 성공적 모델로 내세웠다. 그들은 ‘부의 문화적 향유’를 고귀한 현실 가치로 받아들이도록 동기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환경문제도, 인간 생태계의 문제도,

시민의식의 왜곡도, 모두 ‘소비문화’라는 ‘심미적’ 욕구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이다. 이후 현재까지 ‘소비문화’라는 코드는 경영과 마케팅은 물론 빈곤, 가정과 국가, 정치공학 차원까지도 시대를 읽고 분석하는 중요 키워드가 된 것이다.

1.3.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보병(歩兵) ‘소비문화’

무역장벽의 철폐로 정치적 약탈구도를 마련하여 신자유주의를 건설한 투기자본들은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를 가능케 만들었다. 아메리카에서 석유부국 중동을 비롯하여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인을 ‘소비문화 삶’의 대열에 합방시킨 것이다. 인류의 도덕적 증진이나 평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향유가 ‘선’이며 ‘인간화’로 신앙토록 학습시키고 자발적 추종을 관철시켰다. 이제는 아무도 월부 전집류나 보험 상품을 간청하듯이 판매하러 다니지 않는다. 소비자는 광고의 카피를 자기가 누려야 할 문화적 삶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 정보를 검색하고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구매의 대열에 줄을 서게 된다.

음흉한 자본주의자들을 감시하는 지성들은 끊임없는 자각과 성찰을 통해서 키워드를 새롭게 발굴하는 의식 상태를 견지해갔다. 세상에 대한 교회 지성의 의식도 그러했다. 60~70년대 중남미 해방신학자들은 억압받는 민중의 처지에 주목하고 ‘성서는 인간해방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의 대답을 과감히 던짐으로서 ‘해방신학’(解放神學)을 세웠다.³⁾ 그리고 교의신학자들과 교황청 관리들이 해방신학에 대한 비판과 지탄으로 일갈할 무렵에도, 계속해서 인간 삶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 문제들에 대한 질문으로 신학을 진화시켰다. 그만큼 교회가 끝없는 문제의식에 직면해 있었고 구체적 응답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전통의 교의(敎義)’에서 ‘해방신학’으로, 해방신학에서 ‘여성신학’으로, 여성신학에서 ‘환경신학’으로,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 마침내는 ‘여성신학’에서 ‘소비문화’라는 관점에 동참함으로써 인류의 역사(삶) 자체인 ‘문화’를 아고라의 광장

3) 참조: 구스타보 구티에레즈, 『해방신학』, 성명 옮김. 분도출판사, 2000.

에 세워 그 정체를 밝혀내고 모든 시대문제의 배경을 근원적으로 검증하는 관점에 설 수 있었다. 20세기 말에 이루어진 획기적 학풍의 성과다.

1.4. ‘소비문화’ 의식의 뿌리 ‘상품주의’

‘소비문화’를 기본 키워드로 삼고 대면할 때 다양한 얼굴의 시대 문제는 그 가면을 벗지 않을 수 없었다. 신앙과 성서연구에 들어든다 해도 마찬가지다. 본 원고의 주제도 ‘소비문화’의 키워드에 집중시킬 의도로 장광설 중인데, 상품주의 소비문화가 ‘해방신학’의 산물이라면 해방신학자들조차도 다소 놀라워 할 것이다.

80년대 해방신학의 발전에 참여했던 미국의 ‘존 프란시스 카바나’ 신부는 ‘문화는 복음의 기능을 가진다.’고 믿었다. 문화와 콜라보를 이루는 상품들은 강력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가졌기에 이를 ‘기쁜소식’(福音)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삶을 기쁘게 해주는 이벤트와 상품주의를 ‘문화의 복음’으로 칭하고 이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척점에 두고 ‘미카엘과 루치펠의 두 깃발’⁴⁾의 비유로 삼았다. ‘소비문화’ 키워드를 이냐시오 영성수련에 교합시킨 것이다.

가령 명품은 무엇 때문에 명품인가? 누가 명품의 자격을 주었는가? 명품에 부과된 고가의 액면은 어떤 과정으로 인정받게 되었는가? 같은 원자재와 제조 공장, 디자인 일뿐인데 등록된 명품 라벨 하나로 일반 가격의 수백 배의 비용을 서슴없이 앞 다투어 지불한다면 요귀의 사술에 걸린 행동이 아닐까? 정상인의 판단은 아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종업원을 착취하고 갑질하며 얼마나 인색하게 굴었는지를 알고 있다면…더욱! 많이 배우고 사회적 계급과 지위를 가진 인텔리들이 그런 지적 저능의 우매한 판단을 할 리가 있겠는가? 악령의 속삭임에 말린 것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다.

사목자들은 가파르나움 회당의 예수님 앞에 등장한 악령(마르

4) 예수회의 ‘이냐시오 영성수련’ 묵상에 등장하는 선악의 성찰과 선택 의지에 대한 결심 묵상의 주제.

1,23; 26)과 자신을 ‘군대’라고 밝힌 악령(마르 5,9)의 정체를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악령은 보이지 않으면서 막강한 압력을 과시하는 실체이자 타인에게 모방심과 계급 과시욕으로 전파되는 악성 바이러스이다. ‘존 프란시스 카바나’는 사치와 명품의 소비생활을 문화의 디테일로 접근해 오는 악령의 사술로 규정한다. 강한 중독성을 지녔기 때문에 ‘소비중독’으로 표현된다. ‘소비중독 바이러스’란 말은 사실 1980년대 초 미연방은행들이 신용카드 시스템을 도입한 직후 캐나다와 미국의 국영 TV방송사들이 ‘소비중독’을 각성시키는 다큐 영상을 내보내기 시작할 때 사용했던 말이었다. 그들은 프로명을 ‘소비하다’(aff)와 ‘독감바이러스’(Influenza)를 합성하여 ‘어플루엔자’(affluenza)로 붙였다. 가히 언어의 명품이다.

1.5. 상업 제품이 가진 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누구에게나 개인들의 삶과 공동체 역사에서 전통과 관습으로 학습화되고 내면화된 덕목들이 있다. 가령 도덕과 윤리, 절제와 인내, 예의염치 등의 가치들 말이다. 아무리 소비문화 시스템이 압도하는 국면이라고 해도 그런 전통 관습의 가치들이 이토록 대응의 태도에 무기력할 수 있었을까? 기껏 하나의 ‘상품’이 인격과 삶을 유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점은 너무 과대평가는 아닌가? 아니다! 의식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상품’으로 인한 무엇이 아니라 상품 자체다. 상품은 인간이 만들었기에 창작자의 정령(精靈), 혼(魂)이 담겨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손길을 따라 생명력이 기생되어 살아간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Arther Schopenhauer, 1788~1860)의 표현을 빌면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다. 착안하여 상품을 만들고 상품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이 승용차를 만들고 승용차가 생활을 지배한다.’로 대치할 수 있겠다. 쇼펜하우어의 생각대로라면 사람은 자신의 욕구로 물건을 발명하지만 그 물건은 이미 다른 의지적 능력을 부여받는다. 자신을 발명한 주체와 인격적 경쟁자가 되어 마침내는 이용자의 의지를 지배하고 마는 놀라

운 힘을 가진다. 유용한 물건일수록 이용자를 ‘상품주의 인간’으로 포박하고 ‘소비문화 의존(중독)증 환자’로 만드는 것이다.

인간은 도구인(道具人, Homo Faber)이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들, 농기구든 문구류든 우리는 평소 ‘이런 것은 없을까? 이런 용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 순간 문방구와 농기구상에는 이미 그런 용도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탄한다.

1.6. 상품주의 소비문화 중독증

노동의 편의를 위해 손수 만든 도구가 필요 일반이 되면 상품이 된다. 상품에는 어떤 것이건 ‘편의성’ ‘개별성’ ‘기술성’이라는 세 가지 독성의 파생요소가 있다.

1) ‘편의성’이란 기존 노동의 소모를 더욱 편리한 조작으로 이용하는 효용이다. 모든 상품은 내 수고를 편의롭게 해주는 조건에서 구입된다. 없어도 살아갈 수 있었던 생활에서 머지않아 없이는 살 수 없는 조건화의 독성이 신경중독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2) ‘개별성’이란 편의롭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불편함보다 혼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처음엔 TV 하나로 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했지만, 다음엔 가정마다 한 대씩 들어오면서 가족이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엔 각 방마다 한 대씩 들어와서 채널 다툼이 사라졌다. 이제는 각자의 손마다 한 대씩, 시청 선택도 개별화되었다. 이용비용도 물론 달라졌다. 개별화된 삶은 가족이건 이웃이건 공동체성을 해체시켜 놓는 독성을 가졌다.

3) ‘기술성’이란 더 좋은 기능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고객의 소비패턴을 상품에 묶어두는 것이다. 상품은 튼튼하여 마르고 닳도록 사용해선 안 된다. 일정기간 후 폐기되어야 지속적인 생산 매출 구조가 가능해 진다. 문제는 수명이 짧아진 제품들은 한결같이 포장재와 알 수 없는 성분의 쓰레기들로 배출되어 떠돈다는 점이고 또 구입 가격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1.7. 누가 주인인가?: “똑똑한 비서를 두세요!”

‘편의성’ ‘개별성’ ‘기술성’ 이 세 가지 조합이 모든 소비제품 생산의 기본적 열개이며 메커니즘이다. 필자는 이를 ‘상품주의’라 부르는데 상품은 무생물의 용품이 아니라 이용자의 삶을 간섭하는 생명체라는 의미다.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만큼 필수조건 의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나는 휴대폰 없이 생활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주변 사람들을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이기주의적 태도가 된다. 이로서 구매자의 주변까지 지배하는 생명체가 된다. AI는 지능으로 살아있지만 상품은 정령과 혼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된 본능이고 본성이다.

스마트폰 광고 카피는 ‘똑똑한 비서를 두세요.’라 하지만 아니다. 스마트폰이 아프시면 내가 꼼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시고 받들고 의무감으로 복종해야 한다. ‘상품주의’의 놀라운 메커니즘이다. 티베트의 망명정부 총리였던 ‘삼동 린포체’의 한탄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다가온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신앙의 유산과 문화전통에 대한 자부심으로 중국공산당의 집요한 압박과 해체공작에도 38년 동안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소비문화 앞에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개방 단 10년 만에!” (삼동 린포체)

2. 화려한 고독의 한국 사회

2.1. 역리9제(逆理九題) 시대의 초상들

‘상품주의’와 ‘소비문화’라는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그것들을 워터마크처럼 사회현상에 비추어보면 상품주의 소비문화의 정체가 더욱 드러난다.

한국의 인문학자들은 한국 사회 특징적 현상들을 사회학적 언어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했다. 개별화사회, 계급사회, 잉여사회, 저임금사회, 위험의외주화사회, 상시위험사회, 분노사회, 피로사회, 불

감증사회, 갑질사회, 승자독식사회, 양극화사회, 영어계급화사회, 부품화사회, 분열사회, 불신사회, 지배계급카르텔사회, 루머사회, 종교과잉사회, 고령화사회, 조울증사회, 보험사회, 맛집사회, 저출산사회, 비혼싱글사회, 과잉진료사회, 집단이기주의사회, 신용계급사회, 페미니즘사회 … 헤아릴 수 없이 나열되는 키워드들이다.⁵⁾

이 분석의 대상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비인격적 비인간적 부정성의 꼬리표를 달고 있다는 것이다. 키워드들에 접미사 ‘~주의’를 붙일 수 있고 ‘~시대’를 붙여도 무방하고 이정도만으로도 우리 사회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당초부터 안고 있는 문제도 있고 시대의 진행 가운데 파생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근저와 배경 원인으로 ‘소비문화’ ‘상품주의’와 무관한 키워드는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이다.

상품주의 소비문화가 어떻게 삶을 전복시켜 버렸을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게 소멸되어 버렸다. 종교적으로 육신과 정신, 그리고 영적인 차원까지도 ‘건강성’으로 측정했을 때 모든 구성체 묶음들에서 그 핵심을 잃어버렸는데 문제는 모두가 하느님의 섭리와 창조적 삶을 거스르는 현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창조를 기획하셨던 창세기 역사를 시대성찰의 거울로 삼게 된다. 하느님께서는 “보시니 좋았던” 창조의지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셨는데(창세 6,5~7) 필자는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 살아온 우리 시대인의 삶을 성찰하고 죄를 통렬히 인정하는 처지를 ‘역리9제’(逆理九題)⁶⁾로 정리하여 필봉과 강설의 혀를 놀리고 다닌다. 말하자면 우리 시대의 삶을 창세기에 비추어 본 ‘건강성’이란 X-Ray로 불러내 본 것이다.

- ① 생명 없는 음식, Food without Soul
- ② 가정 없는 가족, Family without relationships
- ③ 쓸모 없는 교육, Education without use(purpose)
- ④ 노동 없는 육신, Body without Labor

5) 참조: 정수복·장석주, 『사회를 말하는 사회 — 한국 사회를 읽는 30개 키워드』, 북바이북, 2014.

6) 참조: 박기호, 『제자로 산다는 것』, 더부네, 2016.

- ⑤ 인정 없는 이웃, Neighbors without Compassion
- ⑥ 책임 없는 자유, Freedom without Responsibility
- ⑦ 인격 없는 의료, Medical Treatment without Humanity
- ⑧ 영성 없는 종교, Religion without Spirituality
- ⑨ 고별 없는 죽음, Death without Farewell

이런 성찰도 접미사로 붙이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사회’가 되고 ‘~시대’ ‘~주의’가 되는 것이다. 쫓겨나야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파괴되면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 문명사회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면 서로 먼저 떠나는 저주의 삶이 되는 것이다. 상품과 소비문화의 생태계는 현대인의 모습을 괴물에 견주어도 무방할 만큼 사람이되 사람일 수 없고 삶이되 살일 수 없는 현실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정확하게 공동체 영성의 붕괴와 소멸의 현실이다. 기술문명이 가져온 상품주의와 소비문화, 이런 시대의 종말은 어디로 향하는 것이며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 것 같은가?

2.2. 홀로 아리랑: 1인 독립가구로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대학의 인류학 교수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로 불리는 현생 인류의 인지혁명에서 현재까지의 진화과정을 ‘사피엔스’라는 저서에 담았다.⁷⁾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창조해 낸 ‘사피엔스’의 기술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를 사피엔스(2권) ‘호모 데우스’(Homo Deus)⁸⁾에 제시했다. 창조된 인간 ‘사피엔스’와 설계된 인간 ‘AI’가 손을 잡고 광화문을 걸어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마침내는 의학기술이 노화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오직 신에게만 유보된 생명의 유한성을 넘어섬으로써 인간이 신의 역할을 차지하려 들게 된다는 것이다.

전망이란 학자들의 고유한 연구 영역이기 때문에 인정한다손 치

7) 참조: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조현욱 옮김, 김영사, 2015.

8) 참조: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조현욱 옮김, 김영사, 2017.

더라도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목적지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미래의 길목인 현재의 삶으로는 어디까지 왔을까?를 시대의 질환과 병리적 현상으로 지적한 현실이 ‘역리구제’이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를 ‘사람과 인간의 건강성’이란 키워드로 읽어 낸 문제들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사유(思惟)는 이미 사유의 능력을 잃었고 호모 파베르의 노동(勞動)은 이미 노동할 수 없는 신체위축증 질환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오직 아직 ‘호모 루덴스’(Homo Ludens, 유희하는 인간) 만이 남아 끝없는 회유로 유랑하고 있다. 아직은 문화의 소비자, 각종 상업주의 이벤트의 고객으로서 결제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삶의 능력을 상실해 온 호모 사피엔스로서 그나마 가장 완전한 삶이 가능한 부분인 것이다. 결제능력만 되면 놀이로 유희하고 여행하며 맛집을 찾아 검색하며 의식주의 경계선에 위에 있다는 의미이겠다. 사람은 개인으로 홀로 있을 때는 ‘사람’(人)이라 하고 둘 이상의 복수로 있을 때 ‘사이 간(間)’을 써서 ‘인간’(人間)이라 쓴다. 그러나 공존의 능력이 없다면 인간이 깨져 인간의 삶을 갖지 못하고 화려한 고독에 올 수밖에 없다. 내 모습의 그림자가 혹시 ‘1인가구’라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현실은 아닐지 싶다.

1인가구의 증가는 삶의 건강성 구조의 이상에서 온 것으로 단정한다. 가정도 아니고 함께도 아닌 1인가구의 현실은 빨간색이다. 사회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건강성의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웃이 있어도 소통이 없고 벽 하나로 붙어살되 가장 가까운 이웃이란 119 밖에 없는 더 이상 분리될 것 없는 이웃과의 간극 현상이 곧 1인가구까지 온 것 아니겠는가?

1인가구는 단순한 주거문제가 아니라 비혼, 싱글, 싱글맘, 무자녀, 계약혼, 저출산, 이혼, 노령화 등 사회적 현상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거니와 개체로 보면 대단히 정상적이며 개인적 능력도 있고 가족관계도 있고 집도 생활도 있으나 다만 가정이 없고 공동체가 없는 것과 계속 늘어나는 추세의 현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개인의 황폐화와 함께 특별히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핵심적인 정책대상으

로 떠오를 전망이다.

1인가구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에서 4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들은 사회복지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1인가구의 증가가 복지나 경제문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세계적 대세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문화적 삶의 현상이란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다.

2.3. 한국의 '1인 독립가구'의 추세

비인간적 나쁜 통계에는 늘 '세계적인 한국'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1인가구 증가 추세는 특히 유별나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인가구의 증가추세를 보면 1970년 이후 2012년까지 42년 동안 1인가구가 9.6% 증가했다는 통계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0년도 15.5%였던 것이 12년 후인 2012년 통계 25.3%로 2,000년 대비 9.8%가 늘었다. 미국의 40년 변동 수치를 12년 만에 압축 추월한 셈이다. 우리 한국 사회는 시대변동의 고점을 203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한국의 1인가구는 전국 시도에서 2035년 최다를 점할 것으로 전망되는데⁹⁾ 1인가구 34.3%, 2인가구는 34%로 예측하고 있다. 2035년도 이후 2인 이하로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68.3%가 될 전망이다. 일반적 정상으로 여겨지는 가구당 5인 이상 가구는 1980년 49.9%였던 것이 2012년에는 7.2%로 32년 만에 일곱 배나 줄어들게 되어 현재 12인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그런데 1인가구의 증가가 꼭 독신주의자들이 증가했다는 의미와 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혼보다는 기혼그룹의 이혼, 별거, 직장, 자녀유학 등 기혼자들의 1인가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위의 마을처럼 국내의 공동생활 공동체는 대부분 개신교 재세례파 계열의 공동체들인데 갈수록 가정 입춘자들이 줄어들고

9) 참조: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2.8.28.

10) 참조: 심용섭 외, 『사회를 말하는 사회』(4장), 북바이북, 2014, 228-234쪽; 노명우,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사월의 책, 2013.

있다. 이는 가톨릭의 예를 볼 때 신학교나 수도단체의 지원자들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현상과도 대단히 일치하고 있다.

결혼이나 자녀 주택 문제는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현실적인 갈망이자 공적 차원의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책임과 대책이 국가 정부의 몫임을 강요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민주주의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난제임을 의미한다.

산위의 마을의 경우 2016년을 마지막으로 이후 가정세대 입촌자는 단 한 가정도 없었고 남녀 독신 입촌자들만 가끔씩 입촌하는 추세이다. 이들 대부분 미혼(未婚)이거나 비혼(非婚)으로 살아온 독신자들도 1인가구로 살아온 지 오래 되었거나 향후라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의도로 보인다. 농촌에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세대와 함께 산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더 이상 부모와 호흡을 맞추어 사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들이다. 고학력 사회의 직업인으로 또는 유용한 라이선스로 경제자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선택도 자유롭고 그런 의지 또한 선명한 세대들이어서 갈등 없이 1인 독립생활이나 공동체를 찾는다. 사회적 환경은 이미 혼자 사는데 오는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나 위협을 받을 우려가 낮다. 달리 생각한다면 그럴수록 결혼에 대한 동경이나 의지, 가정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할 수도 있을진데 … 혈육에게라도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불편하고 두려운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가정이나 사회적 좌절의 경험 때문인지? 무엇이 홀로 사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일까?

3. 시대의 소명: 대응의 삶

3.1. 혼자서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공동체 생활

몇 해 전 공동체 마을 르포 기사를 연재해 온 한 신문사 기자는 연재를 마치고 한권의 책으로 묶어냈다.¹¹⁾ 그는 책자 표지에 ‘혼자

11) 참조: 조현,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한겨레 휴, 2018.

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공동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부제를 붙였다. 혼자 사는 것은 아무리 자유롭다 해도 고독할 수밖에 없다. 정주생활도 은수의 경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함께 산다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이다.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온 습관 때문이다.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것은 관계적 삶의 능력이 완전 바닥임을 의미한다. 명절 때만 되면 라디오 방송들은 시댁과 친정 본가방문의 불평 털어놓기를 방송하는데 10년 30년이 지나도 반복한다. 생각하기 따라서는 모일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일 일진데 잠시나마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하는 불편함을 연중 단 2~3일도 견딜 수 없는 무통(無痛)주의형 인간들의 시대인 것이다. 명절 연휴 해외여행으로 공항을 북적이게 하는 사람들과 '독립가구'로 사는 이들은 아무래도 중복성이 높아 보인다.

사회문제는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제도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또한 개인들의 삶에 대한 태도에서 배설되기도 하는 것이다. 혼자 있어 고독한 것도 함께 라서 괴로운 것도 모두 건강성으로 극복하여 해결할 대상이다. 어려움이 따르는 삶에는 홀로 사는 것도 함께 사는 것도 능력이 된다. 이제는 홀로 사는 것도 대가족으로 사는 것도 개인적 능력의 평가 대상일 때가 올 것이다. 인간관계 능력의 핵심인 협동의 기술을 습득치 않으면 삶 자체가 두려운 대상이 될 것이다.

3.2. 전기 문명 이전의 삶에는

필자의 고향은 공동우물 두 개로 100여 가구 700여 명이 살아온 농촌이다. 1973년에야 전기가 들어왔다. 소농과 소작인들이 대부분인 빈농이었지만 도덕과 예의염치를 국법보다 더 중요시 한 관습과 풍속이 존중되었고 선을 넘은 풍기문란의 경우 마을법정의 '명석말이' 징계도 있던 때였다. 1950년대의 이야기이다. 농경사회의 전통과 문화가 풍요롭게 살아있었다. 필자의 모친은 18세에 결혼하

셨다는데 초등학교 무렵 마을로 시집 오셨던 친척 숙모님이 당시 16세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가난한 집안이건 장애가 있건 나이 들어 결혼 못하는 이가 없었고 초가삼간(방 하나)에 다섯, 일곱 명씩의 자녀를 두었어도 돌봄을 받지 못한 유소아(幼少兒)는 없었다.

젓먹이 아이는 엄마가 받을 때는 동안 밭고랑에 앉아 흙을 주워 먹으며 칭얼거리고 학교에 다녀온 누나들이 업어 길렀지만 아동학대라는 말은 없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을 찾아 도시로 떠나며 이농행렬의 일원이 되었다. 그들 모두도 저마다 짝을 지어 결혼하고 사글세 단칸방에서 살면서도 여러 자녀들을 기르고 성장시켰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경제력을 보장받아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었고, 경제문제 때문에 결혼식을 미룰 수는 있어도 아이를 안 가진다는 건 생각할 수 없었다. 유아원이나 어린이 집이 없었던 시대였지만 말이다.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초등학교 교사나 은행원, 회사원으로 취업하여 하위 임원도 하며 퇴직했고 중고등 학교도 다니지 못한 아이들은 친척이 운영하는 가게의 점원이나 가내수공업의 일꾼이 되어 기술을 배우고 장사를 배우며 야간학교로, 또는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하고 자수성가 하는 코스를 밟게 된다. 현대 젊은이들에게는 영웅적인 인물 수준이 되어야만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모든 이가 창조적 힘을 가졌고 영웅적으로 살았다. 단순비교만으로도 학교교육을 못 받았던 옛사람들의 삶과 고학력의 현대인들의 삶은 어느 쪽이 더 진보의 삶이었다고 볼 것인가?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가? 이는 환경에 대응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마련해 살아가야 하는 대응의 삶에 대한 해답을 보여준다. 미래에 건설할 우리 시대 응답의 모델은 기술문명의 AI가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에 모두 있었다는 의미이다. ‘헬레나 호지’의 체험담 저서¹²⁾처럼 미래 삶의 모델은 과거의 삶에서 찾는다. 이미 버려졌고 지나가 버린 삶 속에 세계가 지키고 보존하여 창조적 삶의 틀로

12) 참조: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김종철 옮김, 『오래된 미래 —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녹색평론사. 2003.

만들어야 할 생태계가 있다. 진보의 삶으로 알고 잘못 든 퇴화의 삶은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해답이다.

3.3. 생태환경: 순응과 대응의 삶

이상의 시대적 관찰과 문제점들은 우리가 원한 삶의 결과는 아니지만 시대인들 스스로 추구해온 삶의 결과라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고 특별히 유·청소년 세대가 마주친 당혹스러운 생태계이다. 선택할 기회도 없이 담겨져 버린 기후와 풍토의 환경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존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피투(被投)된 존재(Geworfenheit)’라고 했다. 부모의 유전자와 건강성, 사회적 계급, 기후와 풍토, 전통의 문화는 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자궁이자 한 생명을 존재케 하는 생태계이다. 생명체는 생태계에 대한 순응과 대응의 선택으로 변이, 적응해 가면서 체질과 기질, 문화와 사상의 토대로 삼게 된다. 고대 중국 북방지역, 농업도 유목도 어려운 척박한 기후와 군웅할거의 치열한 춘추전국시대 대응의 삶에서 공맹사상(孔孟思想)이 나타났고, 동시대 양쯔강 이남(以南) 풍요로운 곡창지대의 정주사회(定住社會)에서는 목가적인 문화와 노장사상(老莊思想)이 나타날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여된 환경을 대면하는 태도로 환경을 극복하고자 도모한다. 물처럼 흐르는 대로 사는 ‘순응의 삶’도 있고, 자손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다 나은 환경과 제도를 구축하고자 저항하고 개조하는 ‘대응의 삶’도 있다. 순응의 삶은 ‘오늘 행복하게 사는 점’을 중시하고 미래를 위한 대응의 삶에는 ‘소명으로 사는 점’을 중시한다. 어떠한 환경이건 자신의 환경에 순응하여 살아남을 것인가? 응전하여 생태계를 구축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 시대 현대인의 삶을 둘러싼 기술문명의 풍토와 환경은 짧은 역사가 만들어 놓은 기술문명의 편리함에 길들이기 좋은 환경이라서 스스로 순응의 삶에 안주할 수 있다. 순응의 삶은 무의식으로 사

는 동물의 삶이다. 사람이지만 노동이 없는 루텐스의 모습이 그러하다. 의식과 노동이 없는 순응의 삶은 에덴동산 인간의 삶과 같아서 이내 창조의 질서에서 이탈할 우려가 높다. 자신의 출신이 신의 창조물이라는 자긍심을 갖는다면 힘써 대응하는 삶에의 태도를 갖추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삶의 부조리에 대한 대응의 태도, 그것은 교회의 언어로 말할 때 ‘사명’이 되고 ‘사목의 과제’가 된다. 사람과 시대를 치유하고 회생시키는 복음적 소명으로 각성된다.

창조성을 붕괴시킨 삶과 문화는 편리함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서 오는 것이어서 그 대응 태도의 대척점은 ‘공동체’ 삶이다. 공동체의 영성과 의식과 관계의 복구가 우리 시대 인간을 찾는 길이다. 자신이 설계했으면서도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AI(인공지능)를 통제해야 하는 것은 복구된 참인간이다. 시대의 과제와 그 해답은 인간성을 복구하는데 있다. 정확히 말해 ‘인간성’과 ‘공동체 영성’이 교회의 소명과 사명, 즉 사목의 핵심임을 알게 한다. 21세기 기술문명과 상품주의 소비문화가 구축해 놓은 생태계와 환경은 무엇을 중심력으로 삼아 개조해 나가야 할 것인가?

3.4. 인류의 역사를 떠받쳐 온 힘, ‘모성성’(母性性)!

며칠 전 뉴스에서는 구청 미화원을 뽑는데 대졸 학사출신자들의 경쟁률이 50:1 이었다고 전했다. 고학력 사회는 적게 배우고도 고급 일을 할 수 있었던 세대의 이야기를 신화라고 일축하지만 돈과 공을 들여서 오로지 공부만 시킨 자녀들이 초등학교 출신만으로도 충분히 무방한 업종의 종사자가 되는 시대를 보는 선대인들은 너무 우스꽝스러워하지 않겠는가? ‘역사는 진보하고 문명은 진화하고 있다.’고 신봉하는 역사관은 맞지 않다.

한국 사회뿐 아니라 인류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 온 공동체의 힘은 가부장 전통의 사회에서 핍박받고 천시 당하면서도 가정을 지키며 아이를 키워냈던 어머니의 ‘모성성’(母性性)이다. 전통사회가 가정에서 국가까지 가부장적 구조를 토대로 삼았다면 그것은 여성의 용기와 희생 위에 서 있던 것이었다. 남성이 여성을 대신할 순

없지만 여성은 남성의 능력을 충분히 감당해 왔다. 이로써 개체의 ‘우생학적 차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주장의 학설도 타당성을 갖는다고 믿어진다.¹³⁾

불평등은 여전하지만 사회진출에 더욱 적극적인 여성들의 힘과 활동은 생물학적 기능성을 넘어 인류의 삶과 생태계를 이루고 역사를 떠받쳐 온 핵심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모성성이 급성으로 고갈되어 왔다는 사실이고 바로 그 시대로부터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진보하지 못했고 인간다움도 소멸되고 역사는 퇴행의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건강성과 역사적 삶의 복구는 어머니의 모성성에 희망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술문명의 상위 국가를 필두로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견고해 감과 동시에 모성성은 기능장애를 드러내고 있으며 삶의 질(質)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한국 사회의 순서라는 생각이다.

3.5. 문제는 건강성이다

공동생활 공동체는 규모에 무관하게 하나의 완전한 소사회(小社會, Little Society)이다.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의미다. 필자는 공동체로 살아오면서 여성의 힘이 공동체를 어떻게 떠받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아울러 ‘가사노동’의 고귀하고 숭고한 가치도 새롭게 각성했다. 여성 가족들의 가사노동 능력이 전체 공동체의 결속과 화합과 기쁨을 선사하며 공동생활의 에너지를 이끌어 내는 능력이기도 하고 반대로 여성 개인들의 노동능력의 위축상태는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히스테리 등 각종 심인성 질환(心因性疾患)과 관계적 갈등을 폭발력으로 드러내 공동체를 전쟁터로 만들고 공동생활을 무력화시키고 좌절케 한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심층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게 한다.

가정 안에서 여성의 힘과 기능은 매사 날날마다 훌륭하고 놀라

13) 참조: 알렉상드르 라크루아(Lacroix Alexandre, 1975~), 이주영 옮김, 『여성의 우월성에 관하여』, 뮤진트리, 2009.

운 능력임을 감탄한다. 그 중 가장 큰 힘과 능력은 학력도 자격증도 미모도 아니고 오직 어머니의 ‘여성성’과 ‘가사노동의 능력’이다. 생래적(生來的)으로 남성성에는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고 여성성에는 보호의 본능인 ‘모성성’(母性性)이 있다. 모성성이 곧 사랑이고 희생이고 가사 노동의 능력이다. 가사노동은 관습과 성차별의 결과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생명보호의 숭고한 능력에 근거함을 깨닫게 된다. 인류의 전통은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 노동의 이중고로 가정과 공동체 역사를 떠받쳐온 위대한 역할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와 현대사는 그 숭고한 가치를 간과해 왔다.

가부장인 남성들은 왜 가정을 건사하는데 바쳐진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 그토록 과소평가 하는 오만의 편견을 견지해 왔을까? 자신의 생명을 잉태시켜 준 어머니의 희생과 손길을 그토록 외면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지배의식과 우월감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아니었을까? 그러나 문제는 이제 현대인 누구에게나 사람의 기본인 ‘건강성’이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모성성도 한없이 무력해져 가는 ‘아줌마’ 세대의 일몰이 다가오고 있다. 인류 역사의 퇴화를 입증하는 실체이다.

4. 교회의 소명과 사목적 응답

4.1. 세상의 조화에 대해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까뮈는 1947년 장편소설 ‘페스트’를 발표했다. 15세기 중반부터 300여 년 동안 유럽을 휩쓴 ‘흑사병’ 창궐을 주제로 한 ‘페스트’는 소설 ‘이방인’과 함께 까뮈의 대표적 작품이다. 등장인물들은 의도적이면서도 인상적인 역할들로 배치되어 있다. 감염된 사람들은 고열의 고통 속에 24시간 내에 속절없이 죽어가는 흑사병! 프랑스 정부는 해안도시 ‘오랑’을 봉쇄한다.

오랑의 본당신부 파눌로는 “흑사병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늘의 응징이다.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설교한다. 그러나 지역의 작은 의원 의사로서 평소에는 대단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었던 ‘리외’는 보건대(자원봉사팀)를 조직하고 혼신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며 마침내는 아내까지 페스트의 희생자로 잃게 된다.

친구들과 모임을 갖던 중 봉쇄령 소식에 갇힌 몇 명의 대학생들은 공포와 혼란의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일을 해야만 할까?’ 숙의하면서 보건대 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의한다. 페스트 소설은 오랑의 일반 시민들과 지식인들이 연대하면서 페스트가 물러갈 때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연대의 활동상들을 소개한다. 특파원으로 입국했다가 오랑의 봉쇄로 갇히게 된 프랑스 신문기자 ‘랑베르’는 ‘리외’를 찾아와 “나는 약혼녀가 기다리고 있어서 곧 탈출해야 합니다만 그동안 만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하면서 보건대에 자원한다.

마침내 본당신부 파눌로도 페스트에 감염되어 앓고 있었다. 신의 사람들도 세상의 재앙을 비켜가지 못했을 때 “나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먼저 갑니다.”하고 숨을 거둔다. 그 무렵부터 페스트는 물러가고 쥐떼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소설은 끝난다. 페스트는 환경에 맞선 오랑 시민들의 연대감과 실천 행동, 빛나는 소명과 시민의식의 승리로 규정된다.

파눌로는 사목자로서 자상하고 인정 많은 인물이었지만 병자성사와 장례 집전을 열심히 하는 것 외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며 ‘사태에 순응하는 유형의 사목자’였다. 페스트라는 세상의 문제를 대하는 당대 교회의 방관자적 태도를 연대로 극복해 온 주민들의 헌신적 희생의 태도와 대조시켜 질책하는 비판적 소설이다. 환경에 대응하는 삶의 태도는 시대의 의무이자 소명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파송 사명이자 더욱 명료한 사목적 과제라는 것이다.

4.2. 공동체가 생태계였던 인간

페스트건 코로나건 감염자와의 접촉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이가 있다면 감염자의 어머니이다. 자식과 몸의 구분이 없이 한 몸이

기 때문이다. 존재일체 공동체이다. 현생 인류의 존재 토대는 공동체이며 가정은 가장 작으면서 가장 완벽한 공동체이다. 공동체의 모든 구조와 요소와 관계성의 현상을 다 갖추고 있는 공동체 모델링이자 현장이다. 성서에 마리아 요셉 부부는 하느님의 육화 강생을 가능케 한 생태계로 불림 받은 가정이었다. 앞서 가정의 중심은 어머니이고 가정공동체를 이끌어 온 가정의 기능을 맡아왔다고 했다. 그렇지만 역사 이래 희생을 강요당하고만 살아온 여성들은 더 이상 가정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의사가 전혀 없는 형편으로 나아가고 있다. 스스로 부른 역사의 반란이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사회적 평등의 법제화, 기회와 기능적 공평성 등 성평등 문제들은 담론의 겉줄기에 불과할 뿐 여성들이 거부하는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 그 핵심이란 양성의 생물학적 평등에 앞서 인격주의적 파트너십과 존중이라 생각된다. 물론 페미니즘의 왜곡성도 진실한 상호존중을 위한 성찰의 정확도 필요하다. 공동체의 완벽한 모델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의 부모 자녀들의 공동체 영성(靈性)이 생산 학습되는 산실이자 학교로서 가정의 기능이 중요시 여겨진다. 가정이라는 인격적 존엄과 생물학적 건강과 사회적 가치의 교육과 학습 실현은 공동체를 복구시키는 운동의 기초이다.

필자는 우리 시대가 상품주의 가치관과 소비문화 삶에 의해 부스러지고 침몰되어 온 ‘파행의 역사’는 동시에 ‘공동체가 붕괴되어 온 역사’라는 평행적 사실로 믿는다. 집단 지성인 교회는 우리 시대 현실의 변화, 공동체의 복구가 치유의 성사라고 믿는다. 그 치유에 대한 믿음과 대응의 삶이 바로 공동체 건설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당마다 생활공동체의 건설! 혹은 그 영향력이 본교의 소명이다.

4.3. 어디까지가 공동체인가?

우리교회 사목자들은 ‘공동체’라는 용어를 ‘구역 반 소공동체 운동’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을 기억이다. 함께 모이는 시간이나 기회

를 중심으로 공동체라 할 것인지, 구성 목적이 공동사회에 속하느냐? 이익사회에 속하느냐?를 중심으로 볼 것인지 저마다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EU공동체’까지 한없이 넓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다. 이해의 공유를 위해 공유하는 기본 개념이 통일되면 더욱 좋겠다. 소공동체 운동 등의 경험과 기억으로는 믿음을 바탕으로 형제자매의 정과 의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뜻으로 쓰게 될 것 같다.

독일의 사회학자 페르디난트 톨니에스(Ferdinand Tonnies)는 집단의 성격을 ‘공동사회’(共同社會, Gemeinschaft)와 ‘이익사회’(利益社會, Gesellschaft)로 구분하였다.¹⁴⁾ 영문표기에서 ‘공동사회’는 ‘Community’로, ‘이익사회’는 ‘Society’를 쓰는데 현대는 조직 구성 자체를 공동체 개념으로 즐겨 쓰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스펙트럼이 더욱 방대해졌다.

재세레파 공동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지상의 착한 순례자로 여기기 때문에 ‘Community’와 구분하기 위하여 ‘셸터’(Shelter)라는 말로 바꿔 쓰기도 한다. ‘피난처’, ‘피난 항구’의 뜻으로 환란을 피해 모인 사람들의 의미이며,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2 ‘노아의 방주’(창세 6,5~22), ‘구원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종교개혁 시대 그들은 암만, 후터, 메논 등 재세레파(Anabaptists) 리더들을 스승으로 추종하였는데 즈빙글리와 이후 켈빈주의자들에게 이단으로 몰려 화형을 당하는 등 박해가 심해지자 추종자들이 산속으로 도피생활을 하면서 재세레파 공동생활의 효시가 되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한 아메리카 이주 후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등 미국, 캐나다 동부 농업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오늘 날의 아미쉬, 후터라이터, 메노나이트 등 공동체 마을로 정착했기 때문에 ‘피난처’란 의미로서의 정체성과 잘 맞는 ‘셸터’를 선호하는 것 같다.

필자가 거주하는 ‘산위의 마을’¹⁵⁾은 현대 소비문화 속에서 상품

14) 참조: 페르디난트 톨니에스, 광노완·황기우 옮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번역 총서 7권, 라움, 2017.

15) 2004년 2월 필자와 공동체를 추구하는 3가정과 독신자 11명이 충청북도 단양군

주의와 소비문화에 의해 병들고 상처받은 삶을 치유하고 건강을 복구하는 삶에 초점을 두고 출범했기 때문에 ‘예수 운동’ 또는 ‘하느님 나라 희년 운동’ 등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여겨진다.

사목자가 시작하고 싶은 공동체 운동과 생활의 동기가, 시대의 치유와 대안의 삶이 목적인가? 아니면 구원을 얻기 위한 완덕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 삶인가? 또는 무소유의 조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인가?에 따라서 공동체가 마을이 될 수도 있고 수도원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협동조합 운동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겠다.

4.4. 삶의 기초건강성, 노동

비혼도 출산의 기피문제도, 외식의 증가도 페미니즘도 나름 사회적 배경과 이유가 있겠으나 더 솔직하고 사실적인 질문이 있다! 현대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 ‘가사노동과 육아’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그것을 하고 말고의 논쟁은 일단 차치하자. 질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엄두와 노동능력이 있기는 한가?’이다. 질문도 대답도 좀 더 솔직하면 좋겠다.

공동체로 사는 여성들도 모두 사회생활에서 옮겨온 이들이거나와 개인별로 놓고 평가하면 가사노동이 ‘가능한 이’와 ‘불가능한 이’로 구별이 된다. 비율로 말할 일도 아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생활로 해내는 힘이나 해결 방식에서 개인들의 레벨 차이를 크게 느끼게 한다. 가사노동에 두려움이 없는 이는 결혼도 출산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으로 믿게 되며 공동체 삶을 탐험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농사도 가사노동도, 마당 쓸고 낙엽 치우고 눈 치우고 가축의 분뇨를 치우는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정생활에서 건군대서건 새 직장이건 역할의 전수 기간을 필요로 한다. 인도의 간디와 그의 후계자 비노바 바베는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존재’로 규정한 영국식 교육을 부정하면서 “노동 없이 공부만 해서야 사람이 되겠는가? 사랑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배우게 하라.”고 가르

쳤다.

가사노동은 여성의 집안 일 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부장 시대 농경사회에서도 남성에게 주어진 가사노동이 있었고, 여성에게 주어진 농업노동이 있었다. 가사노동의 능력이 안 되는 이는 다른 어떤 노동도 어렵고 불투명하다. 가사노동은 육신과 정신 심리의 종합적 건강성의 기준이 된다. 또한 가정에서 남자에게 경제능력이 없을 때는 어머니가 나서서 가부장 기능을 훌륭하게 해내기도 했다. 이 역시 어머니의 힘이 보여주는 ‘여성성’이자 ‘건강성’이다.

건강이란 아프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을 직접 수행하는 능력’이며 ‘자기 신체 이상을 스스로 치유하는 면역의 힘’이다.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가사노동은 삶을 대하는 건강성과 성숙성에 대한 태도이자 덕행의 지표가 된다. 사람의 품성은 드러나는 행동양식이다. 가정이나 일반 생활에서 자기 노동의 부재 현상은 삶의 미숙성과 건강성이 끝없이 쇠락해 가는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다.

5. 시대의 현실에 도전하는 교회

5.1.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시대의 초상과 내면을 관찰한 이유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 판단하고 그 대응의 태도를 궁리해 보고자 함이다. 교회의 본질은 ‘구원의 메신저’이며 타락한 시대 ‘노아의 방주’이다. 교회는 길 잃은 삶의 ‘이정표’이자 ‘구원의 공동체’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문제의 해결’이다. 감옥에 갇힌 자, 중환에 생명이 위독한 자에게 구원이란 석방과 치유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해결해 준 이를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병들어 산소호흡기에 매달려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현실을 우리 교회는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을까? 가마솥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운명처럼 보여질 때 소리쳐 대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원의 활동임을 안다면 강론은 달라지고 사목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구원의 의지가 자신을 매신저가 되게 하고 해결자가 되게 한다는 말이다.

사목자는 구원활동을 소명으로 삼는다. ‘시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하기로 결의하느냐?’가 교회와 사목자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게 한다. 자신이 사는 삶 가운데 시급하고 긴급한 과제로 느껴짐이 없다는 것은 문제로 느껴지는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때야 말로 구원이란 관념에 불과한 언어 놀음이 되는 것이고 전형적인 표층적 종교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종교인이면서도 구원이란 말이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늘 낮은 언어의 무책임한 강설에 불과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교회의 신앙이 문제 해결의 희망도 의지도 없어 보이는 것은 바로 관념적 신앙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관념적 신앙은 자기 삶의 현실에 ① 문제가 없거나 ② 있어도 못 느끼거나 ③ 느끼지만 아직 살만 하거나, 셋 중 하나일 것이다.

지상의 수많은 문제 중에 진정한 문제로 판단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난 삶’이다. 1차적으로는 건강성과 관계성, 즉 개체들의 ‘건강성’과 개체 간의 ‘관계성’을 복구시키는 것이 해결 과제의 대상이다. 모든 존재를 하나의 몸, ‘존재일체’(存在一體)로 고백하는 공동체 영성은 존재를 ‘개체’(個體)와 ‘유기체’(有機體)로 구분하는 것이니 그러하다. 개체는 ①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가장 작고도 가장 완전한 독립체이며 ② 유기적 관계의 작용을 본능으로 타고나 상호 생태계를 이루며 ③ 유기적 관계로부터 오는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적 대응력을 가진 존재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상품주의와 소비문화가 가장 극심하게 파괴시키고 있는 대상이 개인들의 삶을 퇴화시켜 진화를 방해하는 ‘건강성’과 ‘협동심’이다.

5.2. 공동체 영성: 공감, 연민, 배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그 원천은 예수 마음, 즉 ‘공감’(共感)이며 ‘연민’(憐愍)이다. 연민에 대한 배려가 곧

치유의 행위이자 은사였다. 예수는 베엘제불의 줌비로 살아가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루가 19,4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느낀 연민은 무엇이며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화려한 문명이지만 그것은 병들어 죽어가는 현실이었던 것이다(마르 13,1~2). 불행이 닥칠 시간을 알지 못하니 구원을 갈망하지도 않는 세대의 불행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눈물이었다.

거기까지만 이었더라면 십자가 극형에 죽어갈 이유까진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문제의 해결’에 나서셨다는 것이다. 중앙 예루살렘의 결정이 변방 갈릴래아 촌구석의 삶까지 미치고 있는 삶의 현실에 도전하신 것이다. 종교지도자들과의 독설급 논쟁과 성전정화 행동은 그 시대상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대상으로 지목하셨다는 것이고 책임을 새겨주는 의도 행위였다. 공감과 연민은 행동을 낳으니 사목적 대상을 분명히 함에서 그 실천이 나오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비전 없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겠지만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자 주일이면 성당을 찾아와 한 목소리로 경신례를 바친다. 교우들은 앞서 장황하게 살펴본 시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모름과 외면, 좋은 것만 인식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행복이라고 온라인상에서 조각글들은 퍼져 나가겠지만 ‘순응’의 태도를 그렇게 몽퐁그려 버릴 수는 없다. 모른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어서 순응으로 살고 있어도 ‘뭔가 이진 아닌 거 같아? 무슨 일이 있는 건가?’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도 한계에 막힌 사연들을 해결해 달라는 청원의 헌금과 예물을 바친다. 예물은 이내 변신하여 다른 모습으로 사목자 앞에 온다.

5.3. 돈은 명령이다

‘상품주의 소비문화 중독’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이어가는 민중, 그 자신이다. 자신도 모르게 건강성을 상실하고 문화의 노예로 살아가는 교우들이 정체도 모르는 불투

명한 삶의 아쉬움으로 청원의 예를 바치는 것이다. 청원의 약속은 아직 미결상태이니 일종의 부채인 셈인데 집전자는 이미 자신의 권리로 삼고 지출권을 행사해 버릴 수 있다. 기도의 요청은 미사지향 발표로 종료인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하늘의 축복까지 확인되어야 하는가? 축복을 빌어 전한다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임이 결의되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어야만 성사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닐까? “자금 나오는 곳에서 명령도 나온다.”는 말의 원리를 깊이 새겨야 할 것 같다.

구원이란 ‘문제의 해결’이라 했으니 삶의 아쉬운 문제도 문제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이다. 따라서 문제를 아는 것이 첫 번째 해답이다. 사목자가 믿고 아는 것을 선포하는 것, 말씀(강론)이 1차 사목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문화시대 사목자들의 강론은 적어도 ‘상품주의 소비문화 중독’에 대해 맞춰져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교우들의 삶이 상품주의 중독으로 인해 인격주의 삶이 가위눌림 당하고 있지 않은가? 교우들이 알지 못하는 힘에 기운 빠지게 끌려가는 삶의 모습에서 악령을 발견하고 그 포박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악령(귀신)을 추방하는 은사이며 회개의 세례운동이고 하느님 나라 건설 운동이다.

신앙인들은 자본주의 시대 소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 억압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세례의 삶이란 마귀를 끊어버리고 마귀의 악한 행실을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상품주의 소비문화로부터 인격주의 생태문화로 해방되는 것을 과제로 삼는 신앙의 삶을 명료하게 하는 일이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연대의 삶을 꾸리며 대응하는 실천이 필요함을 믿게 할 의무가 있다.

6. 시대에 응답하는 공동체 사목과 공동체 건설의 공학적 모색

6.1. 가장 완전한 공동체의 모델인 가정

공동체가 해답이라 여김에 먼저 공동체 의식을 가까운 구조부터

접근해 가자. 가장 작으면서 가장 완벽한 공동체 단위는 가정이다. 공동체 영성과 덕목은 가정공동체에서 1차적으로 실현되어 공동체 영성을 확장한다. 공동체는 조건 없는 헌신의 사랑과 협동을 덕목으로 삼는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희생, 헌신만이 최고의 진실성을 갖는다. 하느님의 사랑 아니고는 가족 관계보다 완전한 사랑도 희생도 없다. 가족 간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은 조건과 대가 없는 아가페의 사랑에나 견줄 수 있는 혈연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첫째 창조성으로 주어진 본능이고 둘째는 서로가 하나이고,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일체의식이 탄생과 생애를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사랑에 갇히는 것은 사랑과 헌신의 왜곡이며 이웃과 세계와의 단절이 된다. 따라서 가정공동체의 사랑이 진실한 공동체 영성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웃과 사회와도 하나의 몸이라는 의식에서라야 완전한 것이 될 것이다.

본당 모든 사목자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구역반을 조직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공동체 사목의 전문가들로 볼 수 있다. 시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된 현실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사목에로 투신하여 시대의 소명에 응답할 수 있기에 좋은 조건이 아닐까?

6.2. 본당 지역의 생활공동체 센터

이제는 본당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공학적인 차원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탐색해 봐야할 차례이다. 공동체가 본당차원에서 본당 수준과 지역실정에 맞게 건설된다면 이는 가히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사목이 될 수 있다. 국가는 못해도 교회는 가능한 일이 지역 공동체 건설이다. 한국의 본당은 교회의 속지주의 원리에 따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남은 공동체만 수습하여 챙겨도 그 규모가 방대할 것이고 사회 개혁적 수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본당에는 이미 관할 지역사회의 실태조사 자료가 되어 있고 교우들

이 지역 주민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건설을 사목 대상으로 규정하고 착수할 수 있다.

굳이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도 교우들의 견해가 곧 지역사회의 다수 의견으로 확산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도시공동체나 농·산촌 공동체나 하는 지역여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 교우들은 이미 그곳에 생활거주자로서 여건과 이유를 가진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물질(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일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진보적인 사회단체나 자치 단체들과 연대를 이룬다면 의외의 상생구조로 효과적인 투자도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앙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과 동업한다면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게 될 것이다.

6.3. 본당 지역 공동체 건설의 환경적 유익점

본당 자체가 지역사회의 구조를 그대로 안고 건설되기 때문에 본당 지역의 의식수준과 센터 운영 등의 레벨이 높낮이에 상관없는 공동체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협동조합형 도시공동체로 갈 것인가, 생태농업 공동체로 갈 것인가는 굳이 유·불리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본당 지역의 주거 여건 그대로만 가면 전국적으로는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굳이 도농 직거래 구조를 만들 필요도 없고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들이 상부상조의 형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차피 공동체는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는 관계성이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본당 구역 내에 주거지를 둔 교우들은 자신의 직업, 학교 등 생활 조건의 연계 때문에 주거의 소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모두 그 지역에 살아야 할 만한 이유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당이 추진하는 공동체 사목은 그 자체로 현실적인 요소에서 이미 50% 이상은 유리한 조건 위에 건설하게 되어 성공률이 월등할 것이다.

앞서 공동체의 구성 요소¹⁶⁾를 이미 제시했거니와 첫째 요소인 영

16) 단체나 공동체의 결성의 3대 요소는 ① 목적(영성) ② 회원(구성원) ③ 재정(물

성과 이념은 전국의 각 본당 공동체가 공동의 믿음과 고백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구성원은 본당 내 주거지 신앙인이 될 것이고 시설, 생산농지 등 관련 재정문제는 구성원의 출연금이나 본당과 지자체 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에 따라 크거나 작게 시작할 수 있다. 다만 행정당국과의 협력문제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맞게 전문적이고 친밀한 협력체계에서 검토해 나가야 한다.

6.4. 공동체 센터 준비 작업

1) 교회 조정위원회

① 먼저 공동체 영성과 이념 교육 등을 담당할 사령탑으로서 협의회가 교구 단위나 전국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 작업을 지원하는 팀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공동체 건설의 공동적인 업무를 공동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② 공동체 사업 추진에 관한 전반적 사안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공적 부서가 필요하다.

③ 신앙문제의 검토, 교회의 선교적 효과성에 대해 검증하고 교정할 전국위원회(또는 교구위원회)를 두고 중요 사안의 결정과 유지 개정을 담당하여 지역 공동체 건설을 지원하는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교육팀을 두어 지역공동체 준비위원과 가족의 교육과 피정을 지원하게 하는 기능을 해주어야 한다.

2) 모델 공동체의 건립

실제 지역 공동체의 모델적인 실험적 공동체를 먼저 건설하여 양성시킨 후, 공동체의 성장 또는 퇴보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델링 공동체는 본 공동체 건설의 교육과 준비 회의 등 임시센터 구실을 하게 된다. 또한 그 외의 역할들도 준비되어야 한다.

3) 재무·운영위원회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출연금과 임시 사업에 대한 재무관리 역할

적 토대)이다.

및 공동생활 운영의 실무를 맡는 총무부 구매부 사업추진부 등의 기구가 필요하다.

4) 양성·교육위원회

공동생활 지원 가정과 가정의 공동체 영성과 정신교육의 체계적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는 기구를 두고 준비모임에 서부터 양성단계별 교육을 담당한다.

5) 전례위원회

공동체 전례의 유지, 개정 등의 기능을 맡을 모임 기구를 만들고 공동체 전례 기초자료는 타공동체와 통일된 자료를 공유할 수 있음이 좋다. 교회 전례를 기반으로 공동체 특유의 의식이나 경신례를 지역 공동체성에 맞게 마련하고 훈련시키는 기능은 신앙공동체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6) 가족회의

① 공동체는 회의가 많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묶어내는 과정도 공동생활 자체이다.

② 공동체 참가 가족 전체모임, 입촌 시기별 양성모임, 직무별 토론모임, 연령별 모임 등 모든 운영 친교 모임이 마련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③ 공동체가 커지면 회의, 훈련을 담당하는 역할을 둘 필요도 있다.

④ 가족회의는 공동체가 존립되는 시점까지 기능할 중요한 의사결정 모임이므로 그 운영의 역사성이 되고 관습법의 기초로 작용할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⑤ 모든 단위 공동체 회의의 의사결정 구조는 만장일치제로 한다.

6.5. 도시 본당 공동체 운영 형태

재세례파들의 공동생활 공동체가 가정 신앙공동체에 가까운 모

텔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 준비훈련으로 삼고 도시 직업생활에 맞는 공동생활 형태로도 출범할 수 있다.

1) 본당공동체의 기초적 형태

기본 형태인데 주거와 직업은 각자의 책임으로 두고 다음 ① 공동전례 ② 공동식사 ③ 공동육아 ④ 공동경로회 ⑤ 공동수련(공동체 영성 학습) 등을 공동생활의 의무로 두는 기본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 중에 중요한 것은 공동식사인데 매일 저녁식사에만 국한하거나 협의로 결정하면 된다.

주거는 본당이 마련한 센터의 반경으로(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전·월세 소유 등 이전까지 본인의 주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직업은 각자의 직업을 유지하되 직업윤리와 공동체 생활 최대가 능성 차원을 점검하는 상담지도를 받도록 하고 가급적 센터와 가까운 거리에 직장을 두도록 권장한다.

노동 수익 공유화 형태로는 공유제가 아니기 때문에 ① 일정 헌납비용을 분담금 형식으로 취하는 방법 ② 공동체 참가와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이용비용을 책정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구성원들이 가장 편하게 연대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함이 좋겠다.

2) 생산 노동과 소유의 문제

① 공동 공유형: 공동노동은 그 생산 주체가 공동체다. 노동으로 얻은 생산력은 공동체가 가지고, 원칙에 따라 분배하거나 공동체가 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한다. 개인적 관계에서 얻어진 수익은 개인의 소유가 되고 공동노동과 공동체 시간에서 얻어진 모든 수입(판매, 보수 등)은 공동체의 몫이 된다.

② 개별 소유형: 개인적으로 직장이나 수익활동을 가진 이는 직업으로 얻은 수익 중에서 직업 활동에 소요된 일정분을 공제하고 남은 것을 모두 공동체에 내어놓는다.

③ 수익자 부담형: 이용하는 정도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참여 형태로서 도시공동체의 일반형이기도 하다.

3) 구성원의 신원

①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공동체 삶을 통해 인간학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시대의 병리를 치유하는 생태주의적 삶을 이루고자 하는 가톨릭신앙인 공동체 마을이 한 예이다.

공동체의 성격과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분명하고 단순함이 좋다. 기타 중요 운영사항은 복음적 신념으로 결정해서 타협 없이 운영하는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② 입회 탈퇴의 자격, 생활의 의무와 권리, 임원담임권 등은 연차적 마련시기를 두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초창기 공동체의 운영에 부담이 느껴질 정도의 문제들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중독자, 고령자, 환자를 신청하는 대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정부분 공동체가 성장한 이후로 보류할 것인지?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시기를 규정해둬도 좋다.

종교는 같은 종교로 시작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공동체가 종교영성 중심으로 성장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교회 노동자 농민단체 등에서 예비자나 다른 종단 신자들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한 예가 있었지만 좋은 결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평가된다.

6.6. 공동체 사목으로 본당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본당과 본당사제가 주체가 되어 생활공동체 사목을 결행하고 일정기간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었다면 본당 사목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예상되는 면모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가상의 설계를 세우고 채워 나가는 것과 같이 필요하다.

1) 첫째는 본당 내 1인가구에 갇힌 청·장년층 신자들을 본당 사도직으로 이끌어 내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무기력과 우울증, 폐소공포증에 대한 치유의 기회가 되고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는 양성(養成)과 인적 생산력의 기회를 갖게 된다. 공동체 중심으로 모이고 성장되고 공동체 영성을 갖춘 멤버들이 본당 사도직 활동으로 참여하게 되면 활동력 높은 평신도사도직 군(群)을

형성하여 본당에 활력을 일으켜 줄 것이다.

2) 둘째, 공동체가 본당 사도직을 훈련시키는 양성 센터가 되어 신자재교육의 상설 교육관 기능을 하게 된다. 이는 저비용 고효율의 신자재교육과 양성을 돕는 결과를 줄 것이다.

3) 셋째,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본당상’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공동체가 이웃 주민들과의 친교와 토론의 장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 현안 문제와 자치단체 행정 현안 등에 대한 건전한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 가는 소통의 공간 기능을 하게 되어 주민과 함께 하는 교회의 상을 피워내게 될 것이다.

4) 넷째, 공동체 규모의 성장은 본당의 평신도 지도자층을 획기적으로 성장시켜 중심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하향식 본당 운영이 사명감 있는 신자중심의 성숙한 본당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

5) 무엇보다 공동체 건설에 투신한 사목자 자신을 놀랍게 변화시켜 놓는 선물이 될 것이다. 수행에는 공동체만한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마무리하며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예수 부활 후 예루살렘 공동체는¹⁷⁾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추종으로 예수께 합일된 제자들의 기록이다. 제자들은 공동생활을 의식하지 못했다. 당대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활선포를 신뢰하며 모여든 입회자들이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감동 깊은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는 복음선포의 또 다른 차원의 용덕을 얻었을 것으로 상상한다. 자신들도 모르던 새롭고 완전한 삶의 형태가 부활의 은사로 주어졌음을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대 예루살렘 시민들 이상으로 심각한 병리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신앙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도 존재일체의 의식과 믿음과 열린 마음으로 연대하여 살아간다면 믿음 안에서 공감과 연대의

17) 참조: 사도 2,43~47; 4,32~37.

정으로 한 마음 한 정신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사도 공유할 것이라 믿는다.

상품주의에 중독된 삶으로 악령의 속삭임에 허약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스승이신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내어놓고 성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삶은 공동체 생활만 한 것이 없다고 확신한다. 공동체 생활의 시대적 역할과 그 삶이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시키는 능력의 생활이 된다는 믿음을 전하고 싶었다.

필자는 본고에서 산위의 마을과 같은 공동생활 공동체보다 개인의 강력한 본성과 현대인의 성향에 한 단계 융합된 도시형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고 전국의 본당들이 새 시대의 사목으로 숙고해 주기를 간청했다. 그것은 본당 지역 생활공동체 운동이다. 필자의 줄고를 접한 동료 사제들 가운데 공동체 건설 운동과 사목에 작은 영감이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형제 사제들에 의해 도모의 계기가 되기를 또한 희망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족들은 사도행전의 예수부활 공동체(사도 2,43~47; 4,32~37)를 신앙생활에서 평생 단 한번이라도 실천해 보고자 하는 것이 진실한 제자도(弟子道, Discipleship)라고 이해하고 있다. 신앙인들은 진실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 결론을 이미 복음과 설교를 통해 무한반복 학습해 왔기 때문에 자신과 이웃의 완전한 통교, 혼연일체의 삶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정이다. 가정은 가장 완전한 공동체인데 가족 간의 완전한 사랑이 공동체에 대한 투신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동체에 대한 투신이 자녀의 교육과 노동, 공동체 삶의 부자유에 간혀 일단정지 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아쉬운 일이다.

사도행전에서 재산을 다 내어놓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재앙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피라 부부의 이야기¹⁸⁾’를 보면 예수와의 가족을 이루는 투신이, 자신의 가족과 가정을 챙기는 책임감의 벽을 넘지 못한 결림돌이 되었음을 공감하게 된다. 공동체

18) 참조: 사도 5,1~5.

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고백을 검증하는 탁월한 삶이다. 우리 자신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업경대와 같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공동체에 세워놓으면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내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인간의 비겁함과 우월의식과 못된 자존심과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과 지배하고자 하는 계급의식, 그리고 본성적 욕구에 허약한 모습까지 모두 드러난다.

수도자나 공동체인의 수련상태의 레벨 평가는 ‘자기성찰 능력’에 있다. 공동생활은 자신을 늘 공동체라는 엄격한 자기 성찰의 거울 앞에 세우게 한다. 자신을 성찰하고 수련하는 데는 공동체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믿음과 복음 선포 일선에 노고를 거듭하는 동료 도반들에게 내 생각의 옳음만을 강설한 것 같아 면구스럽고 용서를 빌며 넉넉한 마음으로 산위의 마을과 필자를 위해 기억해 주시기를 간청 드린다.

[참고문헌]

『성경』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2.8.28.

알렉상드르 라크루아, 『여성의 우월성에 관하여』, 이주영 옮김, 뮤진트리, 2009.

구스타보 구티에레즈, 『해방신학』, 성염 옮김, 분도출판사, 2000.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유나영 옮김, 도서출판 삼인, 2018.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오래된 미래 —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김종철 옮김, 녹색평론사, 2003.

소스타인 베블런, 『유한계급론』, 김성균 옮김, 우물이있는집, 2012.

페르디난트 퇴니스,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곽노완·황기우 옮김, 라움, 2017.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조현욱 옮김, 김영사, 2015.

_____, 『호모 데우스』, 조현욱 옮김, 김영사, 2017.

노명우,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사월의 책, 2013.

박기호, 『제자로 산다는 것』, 더부네, 2016.

심용섭 외, 『사회를 말하는 사회』, 북바이북, 2014.

정수복·장석주, 『사회를 말하는 사회 — 한국 사회를 읽는 30개 키워드』, 북바이북, 2014.

조현,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한겨레 휴, 2018.

국문초록

‘창조 질서의 보존과 삶이 곧 생명과 평화의 길’이라는 믿음은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현대 교종들의 일관된 가르침이자 고백이다. 창조의 삶이 병들어 가는 역리적 병리 현상이 ‘비혼’(非婚)과 ‘출산 저하’, ‘1인가구의 급증’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는 바, 우리 시대인의 정신세계와 관계적 삶이 중독성 강한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시대현상을 이미 검증된 인문학적 통찰로 관찰했고 그 생태적 배경과 원인을 ‘상품주의’와 ‘소비문화 중독’에서 찾아 제시하는 바 이는 신자유주의 질서의 핵심적 열개이다.

구원의 성사를 자임하는 교회로서 시대인의 병리와 아픔에 대한 치유자의 소명과 사명감은 대안의 삶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실천적 사목을 궁리하고, 소비문화 시대와 함께 가는 교회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과제로 삼아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줄필의 의도이다. 이미 크리스천 공동체들에서 시도 시행되고 있는 ‘도시형 공동생활 공동체’를 가톨릭교회의 방식에 적합하게 활용하여 ‘가톨릭형 도시공동체’를 건설해 보자는 약간의 가상적이면서도 구체적 방법론을 포함한 제안이다.

필자는 공동체가 대안의 삶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가톨릭 신앙인 공동체’에 살고 있다. 동료 사목자들의 사목적 고민에 작은 영감(靈感)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 글의 소명으로 충분하겠다.